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의 만족과 관련 변인

정진환¹, 이창식^{1*}

¹한서대학교 아동청소년복지학과

Women Immigrants' Satisfaction with Life and Related Variables

Jin-Hwan Jeong¹ and Chang-Seek Lee^{1*}

¹Dept. of Child and Adolescent Welfare, Hanseo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부부 108쌍을 대상으로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의 만족과 관련 변인간의 상관관계와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2011년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에 걸쳐 진행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의 만족 및 희망은 남편의 희망 및 삶의 만족과 정적 상관 관계를 보였고, 부부갈등과는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남편의 부부갈등은 유의미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여성결혼이민자의 주도사고와 남편의 삶의 만족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 희망의 주도사고가 가장 영향력 있는 변인이었다.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부부의 자료를 활용하여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의 만족과 희망, 그리고 부부갈등에 대해 처음으로 관심을 가졌으며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가정의 안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데 큰 의미를 두고자 한다.

Abstract This study aimed at identifying the correlation of satisfaction with life and related variables, and the variables influencing the satisfaction with life of women immigrants. The subjects for the study were 108 couple of multicultural families. The main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women immigrants' satisfaction with life and hope were positively correlated with husbands' hope and satisfaction with life, and negatively correlated with marital conflict. But there were no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marital conflict. Second, the result of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predictors influencing satisfaction with life of women immigrants were women immigrants' agency thinking and husbands' satisfaction with life.

Key Words : Multicultural Family, Women Immigrants, Satisfaction with Life, Hope, Agency Thinking, Pathway Thinking, Marital Conflict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한국은 외국인이 100만 명이 넘는 다인종, 다문화사회가 되었다. 과거에는 국제결혼, 이중 문화가정 등으로 불리던 국제결혼가족을 “다문화 가족”으로 부르는데 이는 정부와 이주노동운동진영이 “다문화”란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한 2005년경부터이다. 이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처우가 주요한 사회적 이슈로 다뤄지게 된 것과 관련이 있다[9].

그리고 외국인의 증가로 인해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의 만족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삶의 만족이란 자신의 현재 삶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는가를 개인 자신이 인지하고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것[32]인 바 결혼, 가족, 주거, 직업, 친구, 이웃, 건강과 같은 삶의 영역에 대하여 한 개인이 경험하고 싶어 하는 수준과 현재의 생활조건과의 비교에 의해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24].

이러한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의 만족을 결정하는 요인은 성별, 연령, 교육정도, 종교, 경제적 수준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배경과 더불어 건강상태, 가족관계, 자아존중

본 논문은 한서대학교 2010학년도 대학원생 교비 학술연구비 지원과제로 수행되었음.

*교신저자 : 이창식(lee1246@hanmail.net)

접수일 11년 11월 07일

수정일 11년 11월 21일

게재확정일 12년 01월 05일

감, 사회적지지 등으로 보고되고 있다[3, 12, 20].

또한 삶의 본질인 희망은 삶의 만족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인인데 이는 가능성과 잠재력을 찾는 과정[2]으로 고통 속에 있는 인간이 성장과 삶의 의미를 찾게 한다. 그래서 희망수준이 높은 사람은 도전적이며, 실패보다는 성공에 초점을 맞추고, 목표달성에 대한 가능성을 많이 지각하며, 긍정적인 정서 상태를 유지하는 특성을 보이지만, 희망수준이 낮은 사람은 실패에 초점을 맞추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에 관심을 보이며, 부정적인 정서 상태를 유지한다고 말한다[34]. 따라서 여성결혼이민자의 희망은 이민의 동기이며, 이민 후 안정적인 정착과 아울러 삶을 유지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한다.

이처럼 삶을 살아가면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여성결혼이민자는 문화와 언어가 다른 남편과의 갈등 부분이다. 이는 삶의 만족은 물론 희망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특히 부부관계란 사회·문화적 환경이 다른 가정에서 자란 두 남녀가 결혼이라는 의식으로 관계를 맺게 된 것이므로 결혼 생활에 있어서 성장 배경, 경험, 사고방식 등의 차이로 인한 어느 정도의 불만, 갈등, 충돌이 있기 마련이다 [22].

이러한 갈등의 유형은 개인적, 심리적, 환경적 요인에 의해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도 긍정적인 사고성향을 가지고 있는 부부라면 갈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긍정적인 사고성향 중에서도 미래를 바라보고 희망을 가지고 있는 가정의 부부들은 부부갈등의 경험을 그렇지 않은 가정의 부부들보다 적게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희망, 부부갈등은 삶의 만족과 관련이 있는 변인으로 보이지만 이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으며, 특히 여성결혼이민자와 이의 남편인 다문화가정 부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전무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희망과 부부갈등의 관계를 파악하고, 남편 변인들의 관계를 파악하여 다문화 가정의 안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1.2 연구문제

연구의 필요성에 의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의 만족, 희망, 부부갈등과 남편의 삶의 만족, 희망, 부부갈등과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주는 여성결혼이민자 및 남편 변인은 무엇인가?

2. 이론적 배경

2.1 다문화가정 개념

다문화가정이란 통상적으로 국제결혼을 통해 형성된 가정을 지칭한다. 다문화가정은 학술적 용어, 법률적 용어나 정의는 아니다. 그 동안 이와 비슷한 뜻으로 사용되어 온 국제결혼가정은 국적이 서로 다른 사람끼리 결합된 가정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다문화가정이라는 용어는 한 가정 내의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는 이들 사이의 결합이라는 문화적 요소를 보다 강조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한국 국제결혼의 시초는 한국전쟁 이후 미국인 남성과 한국인 여성들과의 결혼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 결과 한국사회에서의 국제결혼은 부정적 편견이 뿌리 깊게 인식되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다문화가정 여성이 늘어나게 된 것은 사회 전체의 고학력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증대, 그로 인한 결혼 연령의 상승이 연쇄적으로 이어지면서 만혼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독신자 비율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그 결과 우리나라에서 배우자를 구하지 못하는 교란 현상이 발생하여 결혼이민자들을 필요로 하게 되어 증가하였다[19].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로는 여성의 만혼화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자신보다 나은 남편을 만나기 위하여 도시의 청년들을 찾다보니 농촌의 청년들은 고연령이 되어도 결혼을 하지 못하게 되어 동남아시아 국가의 여성들과 결혼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 의해서 다문화가정 여성이 증가하였다.

또한 국내의 다문화가정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기존에는 결혼알선 업체를 통해서 주로 이루어졌지만, 최근에는 유학이나, 여행 등을 통해 서로 사랑하여 결혼하는 사례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2 삶의 만족

인간은 자신이 소속한 사회에서 그 구성원들과 상호작용하면서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궁극적으로는 만족스럽고 행복한 삶을 추구해 나가는 존재이다. 삶의 만족스럽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인간들은 목표를 정하고 이루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한다.

삶의 만족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Havighurst [31]는 삶의 만족에 대한 연구에서 사회경제적 요인과 사회적 활동이 삶의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보았고, 성별, 연령, 교육수준, 직업, 수입, 결혼유무, 종교, 사회참여, 인종, 건강 등이 삶의 만족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보고되었다[1,2,8]. 국내의 연구에서는 삶의 만족과

관련된 연구에서 성별, 연령, 교육정도, 결혼유무, 주거형태, 소득 등의 요인이 삶의 만족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1].

다문화가정 여성의 삶의 만족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긍정적인 사회참여태도[3], 자신들의 모국문화 이해 노력, 친정 방문 정도[5], 사회적 지지의 유무와 사회적 지지의 정도[33]에 따라서 삶의 만족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7].

2.3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의 만족과 관련 변인

2.2.1 희망

지금까지 많은 연구자들이 희망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시도해왔는데 우선 희망에 대한 인지적 접근으로 살펴볼 수 있다. 희망에 관한 인지적 접근에서 Erikson[30]은 우리가 태어나면서 희망한다고 가정하면서 희망이 건강한 인지 발달의 한 요소라고 제안하며, 희망은 개인이 목표를 향한 움직임을 유지하도록 해주는 사고나 신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1950년대부터 1960년대에 이르기까지 초기 연구자들은 희망을 ‘목표획득을 위한 긍정적 기대’로 정의하였다[16].

이러한 개인의 막연한 믿음과 바람의 뜻으로 사용되던 희망의 개념을 과학적인 연구와 측정 가능한 체계적인 개념으로 연구해온 학자는 Snyder와 그의 동료들이다. Snyder 등[36]은 기존 학자들의 희망 개념이 모호한 인상을 주며, 희망에 대한 이해를 어렵게 하고 있어 이를 통해서 희망을 측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희망의 인지적인 과정을 강조하면서 새롭게 희망이론을 제안하였다. 그들은 희망을 목표지향성으로 보고 희망주도와 희망경로의 합을 통해서 희망을 설명할 수 있다고 보았다.

희망과 삶의 만족에 대한 선행연구에 의하면 희망이 삶의 질을 높이는 삶의 긍정적인 대처방식이 될 수 있고, 희망이 높은 사람들은 목표를 추구하도록 에너지를 활성화하므로 긍정 정서를 경험하게 되어 정서적 불편감을 낮추고 심리적 안녕감이나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24]는 결과가 있어 삶의 만족과 희망이 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론은 되나 관련 선행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며, 부부갈등과 삶의 만족에 대한 연구는 없다. 특히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2.2.2 부부갈등

일반적으로 갈등이란 견해나 주장, 이해 등이 뒤엉킨 복잡한 관계 혹은 정신내부에서 일어나는 서로 다른 두 가지 이상의 욕구가 충돌하는 상태를 말한다. 이러한 갈

등은 부부관계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부부관계에서의 갈등은 서로 다른 가정환경에서 자라온 남매가 만나게 되면서 생활하면서 서로 대립되면서 심화되기도 한다. 이러한 부부갈등으로 인해 이혼하는 가정도 발생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부부갈등을 3가지 측면에서 보다 세분하여 언급하였다. 첫째, 구조적 측면은 서로 다른 욕구를 가진 두 사람이 서로 관계하면서 갈등이 결과로 나타나는데 시댁관계, 경제 문제 등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둘째, 기능적 측면은 개인이 그의 욕구에 일치하기 위해 어떻게 행동하는가와 관련되는 것으로서 그의 욕구가 행동과 일치되지 못할 때 갈등이 리어난다고 본다. 셋째, 발전적인 측면은 개인이 가족, 동료, 부부, 부모, 자녀 체계와의 관계가 발전하지 못할 때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다[6].

국내의 부부갈등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이미영, 박혜인[13], 최선희, 전명희[25] 등은 부부 관계적 갈등의 정의에 기초하고 있고, 이민식과 오경자[14]는 부부갈등을 ‘부부가 서로의 대립과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해 교환하는 관찰 가능한 부정적인 언어적, 비언어적 상호작용’이라고 했으며 ‘부부가 가정생활의 여러 측면에서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겪는 긴장된 상호작용’이라고 하여, 주로 부부간의 불일치란 긴장에 초점을 두고 있다[18].

이러한 부부관계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주목받고 있는 부부갈등의 연구는 일반 가정에 대해 많이 연구되었으며,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삶의 만족에 대한 연구와 다문화가정의 부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3. 연구방법

3.1 조사대상

본 연구는 충청남도 S시, D군, T군, H군 등 4개 시군의 다문화 가정 부부 108쌍, 전체 21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여성결혼이민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보면 출신국가는 동남아권 57.4%, 동북아권 31.5%, 유럽 및 기타권이 7.4%, 무응답이 3.7%였고, 연령은 25세 이하가 33.3%, 26~30세가 35.2%, 31세 이상이 31.5%였으며, 이들의 교육수준은 고졸이 59.3%로 가장 많았다. 종교는 불교가 가장 많은 44.4%였고, 힌두교, 유교 등의 기타 종교가 40.7%로 그 다음으로 많았으며, 모국에서의 직업은 관리, 사무직, 전문직, 무직이 53.7%로 가장 많았다.

여성결혼이민자 남편의 인구사회학적인 특성은 연령대가 41~50세 이하가 57.4%로 가장 많았고, 51세 이상

이 13.0%로 가장 적었다. 종교는 무교가 48.1%로 가장 많았고, 교육수준은 고졸이 46.3%로 가장 많았다. 남편의 직업은 판매, 서비스, 생산직이 38.9%로 가장 많았고, 농업·어업 27.8%, 관리, 사무직, 전문직, 무직이 18.5%, 자영업이 14.8%순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정 부부의 특성은 결혼 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부부가 46.3%로 가장 많았고, 가족 구성은 부모와 자녀가 동거하는 가정이 31.5%로 가장 많았으며, 자녀수는 2명인 가정이 37.0%로 가장 많았다. 거주 지역은 80%이상인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소득수준은 57.4%의 가정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3.2 자료수집방법

자료는 S시, D군, T군, H군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직원을 통해 센터에 방문한 여성결혼이민자와 그 남편과 방문가정사의 도움으로 다문화가정 부부에게 설문지를 배포, 즉시 회수하는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설문조사는 2011년 5월 설문조사를 위한 설문지 작성을 시작하여 6월부터 8월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총 4개월에 걸쳐 진행하였다.

3.3 조사도구

3.3.1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는 Diener, Emmons, Larsen과 Criffin[29]이 개발하고 이은경[15]이 번안하여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조사대상자가 삶에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알아보는 문항으로 총 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전혀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삶의 만족도 척도의 Cronbach's α 값은 .912로 높게 나타났다.

3.3.2 희망

희망 척도는 Snyder[35]의 희망척도를 최윤희, 이희경, 이동귀[26]가 번안한 한국판 희망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희망정도를 알아보는 설문으로 주도사고 4문항, 경로사고 4문항, 허위 문항 4문항으로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전혀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까지 Likert 4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총점이 높을수록 희망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주도사고의 Cronbach's α 값은 .856이었고, 경로사고의 Cronbach's α 값은 .765로 나타났다.

3.3.3 부부갈등

한국의 실정에 맞게 개발한 부부갈등척도를 김오남[7]이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개인적 특성에 대한 질문 3문항, 부부관계적 특성에 대한 질문 3문항, 공동생활 특성에 대한 질문 3문항, 제삼자 영역 특성 질문 3문항으로 총 12문항으로 되어 있으며, '전혀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갈등의 정도가 심각한 것을 의미하며, 부부갈등의 Cronbach's α 값은 .969로 높게 나타났다.

3.3.4 인구사회학적 변인 및 가족특성

인구사회학적 변인 및 가족특성 문항으로 여성결혼이민자는 출신국가, 연령, 교육수준, 종교, 모국직업 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5문항으로 구성하였고, 여성결혼이민자 남편은 연령, 종교, 교육수준, 직업 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4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다문화가정의 특성은 결혼기간, 가족구성, 자녀수, 거주 지역, 소득수준 등 5문항 총 1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3.4 자료분석

자료는 Window용 SPSS+ 12.0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부부간의 희망과 삶의 만족도, 부부갈등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를 사용하였고,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의 만족과 희망, 부부갈등, 남편의 희망, 부부갈등, 삶의 만족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활용하였으며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파악하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4. 연구결과

4.1 주요변인의 일반적 경향

4.1.1 여성결혼이민자

여성결혼이민자의 주도사고는 4점 만점에 2.57점, 경로사고는 2.67점으로 중간 이상의 수준으로 나타났고, 삶의 만족은 5점 만점에 2.98점, 중간이상의 수준으로 삶에 대해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부부갈등은 2.67점으로 중간이상의 점수를 보여 부부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여성결혼이민자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of main variables of Women immigrants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희망	주도사고	1.50	4.00	2.57	.47
	경로사고	1.67	3.75	2.67	.43
삶의 만족		1.50	5.00	2.98	.69
부부갈등		1.00	4.00	2.67	.74

4.1.2 여성결혼이민자 남편

여성결혼이민자 남편의 주도사고는 4점 만점에 2.58 점, 경로사고는 2.77점으로 중간 이상의 수준으로 나타났고, 삶의 만족은 5점 만점에 2.99점으로 중간이상의 수준으로 삶에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부갈등은 2.64로 중간점수보다 높아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결혼이민자와 남편의 주요 변인간 평균 점수에서 차이가 거의 없었다.

[표 2] 남편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main variables of husbands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희망	주도사고	1.00	3.75	2.58	.47
	경로사고	1.00	3.75	2.77	.47
삶의 만족		1.60	5.00	2.99	.64
부부갈등		1.00	4.00	2.64	.83

4.2 주요 변인간 상관관계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의 만족과 희망, 부부갈등, 남편의 삶의 만족, 희망, 부부갈등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의 만족과 남편의 부부갈등은 유의

[표 3] 상관분석
 [Table 3] Correlation analysis

		여성결혼이민자				남편			
		삶의 만족	주도사고	경로사고	부부갈등	주도사고	경로사고	부부갈등	삶의 만족
여성결혼 이민자 변인	삶의 만족	1							
	주도사고	.705**	1						
	경로사고	.332**	.422**	1					
	부부갈등	-.293**	-.215*	-.096	1				
남편 변인	주도사고	.434**	.588**	.202*	.144	1			
	경로사고	.394**	.515**	.423**	.147	.626**	1		
	부부갈등	-.169	-.208*	-.103	.706**	-.054	.067	1	
	삶의 만족	.654**	.484**	.229*	-.195	.449	.276**	-.156	1

*p<.05, **p<.01

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변인인 여성결혼이민자의 희망, 부부갈등, 남편의 희망, 삶의 만족은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의 만족, 주도사고 및 경로사고와 남편의 주도사고, 경로사고 및 삶의 만족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의 만족과 부부갈등은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중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의 만족과 주도사고가 가장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4.3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중다회귀분석이 기본가정을 충족시키는 지 여부를 파악하였다. 잔차의 독립성을 파악하는 Durbin-watson 값은 1.891로 정상범위(0-2) 내의 값을 가지며, 극단치를 파악하는 Mahalanobis와 Cook의 거리는 각각 .866-24.370, .000-.117, 그리고 중심화된 Leverage 값은 .008-.237로 정상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다중공선성을 파악하는 공차한계는 .420-.775, 상승변량은 1.890-2.380으로 정상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기본가정이 충족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상관분석을 통해 유의성이 없는 남편의 부부갈등을 제외한 여성결혼이민자의 주도사고, 경로사고, 부부갈등, 남편의 주도사고, 경로사고, 삶의 만족을 독립변인으로 투입하였다.

분석 결과 투입된 변인은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의 만족 전체 설명변량은 64.2%로 높은 설명력을 보였다. 투입한 변인 중 여성결혼이민자의 주도사고와 남편의 삶의 만족이 유의성이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고, 두 변인 모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상대적 기여도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주도사고가 더 높게 나타났다.

요약하면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의 만족은 주도사고가

높을수록, 남편의 삶의 만족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표 4] 여성결혼이민자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Table 4] Variables Influencing the Satisfaction with Life of Women Immigrants

독립변인		B	β
여성결혼 이민자 변인	주도사고	.720	.495***
	경로사고	.011	.007
	부부갈등	-.099	-.104
남편 변인	주도사고	-.122	-.084
	경로사고	.101	.069
	삶의 만족	.452	.410***
F		28.929***	
R ²		.642	

***p<.000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의 만족과 관련 변인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의 만족과 희망(주도사고, 경로사고), 부부갈등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의 만족은 희망의 하위영역인 주도사고와 경로사고, 남편의 주도사고와 경로사고, 남편의 삶의 만족과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고, 부부갈등과는 부적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 중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의 만족과 주도사고가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기존 연구에서[24]의 결과와 일치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목표 설정과 관련된 주도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의 만족이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둘째,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분석한 결과 주도사고와 남편의 삶의 만족이 영향을 주었으며, 특히, 주도사고가 가장 많은 영향을 주었다. 기존선행연구와의 결과와 비교할 수 없지만 여성결혼이민자가 자신의 삶에서 목표 설정과 관련된 주도사고가 매우 중요하며, 남편의 삶에 대한 만족 또한 중요하게 인식해야 할 과제로 보인다. 따라서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의 만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성결혼이민자의 남편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나 정책 개발 또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설문은 충남지역에 한정되고 적은 수의 표본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였기에 연구의 결과를 전국으로 일반화하는데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전국단위 샘플링과 표본 수의 증기를 통한 보다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희망, 부부갈등만을 측정하였지만 추후 연구에서는 더욱 다양한 변인을 활용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부부의 자료를 활용하여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의 만족과 희망, 그리고 부부갈등에 대해 처음으로 관심을 가졌으며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가정의 안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데 큰 의미를 두고자 한다.

References

- [1] Kwak, B. E., "A study of socialization of social welfare institution and QOL of the Ewellers: on elderly welfare institutions", Catholic University Doctor's thesis, 2006.
- [2] Kim, K. H., "Relationship among Psychological well-being, life satisfaction, expectation for life of general employee", Dankook University Master's thesis, 2009.
- [3] Kim, N. Y., "A Study on Life Satisfaction about International Marriage of Women Immigrants", Ewhg University Master's thesis, 2007.
- [4] Kim, D. S., "Theory construction of hope for nurs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Doctor's thesis, 1992.
- [5] Kim, M. K., "Study on how conflicts between female immigrants and their orhrtr-in-law affect their life satisfaction", Baekseok University Master's thesis, 2010.
- [6] Kim, S. I., "A study on marital conflict factors at the multi-cultural homes : focused on the immigrant women in Ansan-si, Gyeonggi-do", Korea University Master's thesis, 2010
- [7] Kim, O. N.,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Marital Conflicts of Immigrant Women", Family and culture, 18, 3, 63-106, 2006.
- [8] Kim, J. S., "A study on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in korea", Ewha Womans University Doctor's thesis, 1987.
- [9] Ryu, S. H., "A study on life and satisfaction of wom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Hanseo University Master's thesis, 2010.
- [10] Park, J. Y., "Couple Relationship and Related Variables of Women Immigrants", Journal of Agricultural Extension & Community Development, 17, 2, 305-326, 2010.
- [11] Yang, O. K., "Development of scale for life satisfaction", Korea journal of social welfare, -,24, 157-198, 1994.
- [12] Yoon, H. Y., "A Study on Acculturation about International Marriage of Women Immigrants and

- Satisfaction Life”, Silla University Master’s thesis, 2009.
- [13] Lee, M. Y., Park, H. Y., “A case Analysis on marital conflict problem and coping behavior”,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3, 1, 141-154, 1995.
- [14] Lee, M. S., Oh, K. J., “Effects of perceived marital conflicts on children’s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9, 4, 727-745, 2000.
- [15] Lee, E. K., “Effects of neuroticism and extraversion on subjective well-being : the importance of depression and positive emotions”, Yonsei University Master’s thesis, 2005.
- [16] Lee, E. Y., “The influence of hope and ego-identity on the career maturity of middle school student”, Sookmyung Women’s University Master’s thesis, 2008
- [17] Lee, C. S., “The Effects of Family Relationship of Women Immigrants on Satisfaction with Life”, Journal of Agricultural Extension & Community Development, 17, 4, 717-742, 2010.
- [18] Lee, H. W., “A study on the Effect of dysfunctional communication in marital conflicts between women migrated from foreign countries and Korean men”, Sungkyul University Doctor’s thesis, 2011.
- [19] Jang, E. S., “The Influence of Psychology and Family-Relational Features of Women in Multicultural Families on Nurturing Attitude”, Hanseo University Doctor’s thesis, 2011.
- [20] Jang, E. A., “Effect on Life Satisfaction of Cultural Identity and the Social Relation Network of Female Marriage Immigrants”, Chung-Ang University Master’s thesis, 2010.
- [21] Jeon, K. S., “A Comparative Study on the Living Conditions of Teenagers from Multicultural Family and Normal Family in Gyeonggi Prefecture”, The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16, 1, 167-185, 2008.
- [22] Cho, K. S., “A Study on the Causes of Conflicts between Couples focused on problem resolve”, Keimyung University Master’s thesis, 2004.
- [23] Cho, Y. R., “Marital conflicts, Conflict Coping Behavior and Marital Satisfac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Master’s thesis, 2000.
- [24] Cho, H. J., “The Effects of Hope on Life Stress, Psychopathology and Life Satisfaction”,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9, 3, 839-852, 2010.
- [25] Choi, S. H., Jun, M. H., “A study on the instability of marital relationship in Korea”,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 38, 284-308, 1999.
- [26] Choi, Y. H., Lee, H. K., & Lee, D. G., “Valid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Snyder’s Dispositional Hope Scale”, The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22, 2, 1-16, 2008.
- [27] Bailey, T. C., & Snyder, C. R., “Satisfaction with life and hope: A look at age and marital status”, The Psychological Record, 57, 233-240, 2007.
- [28] Campell, A., “Subjective measure of wellbeing”, American Psychology, 31, 117-124, 1976.
- [29] Diener, E., Emmons, R. A., Larsen, R. J., & Griffin, S.,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 71-75, 1985.
- [30] Erikson, E. H., “Child and Society(2nd ed.). New York: W.W. Norton & co. 1963.
- [31] Havighurst, R. “Disengagement and patterns of aging”,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8.
- [32] Lehman, A. F., Ward, N. & Linn, L., “Chronic mental patients. The Quality of life issues”,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39, 1271-1276, 1982.
- [33] Liu, M. F., Chung, H. H., & Hsu, M. T. “Adaptation of foreign brides in Taiwan: Implications for nursing”, The Journal of Nursing, 48(4), 85-89, 2001
- [34] Snyder, C. R., “Hope and optimism. In V. S. Ramachandran (Ed.), Encyclopedia of Human Behavior”, 535-542, San Diego, CA: Academic Press. 1994.
- [35] Snyder, C. R., Symptom, S. C., Yabasco, F. C., Borders, T. F., Babyak, M. A. & Higgins, R. L.,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Stat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321-355, 1996.
- [36] Snyder, C. R., Irving, L. M., & Anderson, J. “*Hope and health*. In C. R. Snyder & D. R. Forsyth(Eds.)”, Handbook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Elmsford, NY: Pergamon Press, 1991.

정진환(Jin-Hwan Jeong)

[정회원]



- 2009년 3월 ~ 2011년 2월 : 한서대학교 아동청소년복지학과 석사 졸업(사회복지학석사)
- 2011년 3월 ~ 현재 : 한서대학교 아동청소년복지학과 박사과정

<관심분야>
사회복지, 다문화교육, 아동청소년복지

이 창 식(Chang-Seek Lee)

[정회원]



- 1993년 2월 ~ 현재 : 한서대학교 아동청소년복지학과 교수

<관심분야>

평생교육, 다문화교육, 아동청소년복지